

酒疸의 治方에 對한 文獻的 考察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內科學教室

金剛山·姜秉淇

I. 緒論

疸은 熱性的의 뜻을 가지는데³⁰⁾ 酒疸은 焦燥해서 沈着하지 못하고 發熱을 느끼며 飲食을 먹고 싶지 않고 늘 吐하고 싶은 證狀³³⁾을 가지는 全身的 疾患이다.

韓醫學에서 五種 黃疸 가운데 하나인 酒疸은 張¹⁾에 의해 最初로 細分되었고 그 후의 醫書에서는 酒黃⁷⁾, 酒癰^{3,7,22)}으로 表見되기도 하였으나 大蓋 「心中懊懣而熱 不能食 時欲吐」, 「必小便不利 其候心中熱 足下熱」, 「或無熱 證言了了 腹滿 欲吐 鼻燥」, 「足脛滿 小便黃 面發赤斑」, 「面赤言語帶邪 昏錯亂 目中黃色」의 臨床症狀를 가지는 것으로 記載되고 있으며, 原因에 있어서도 「虛勞之人 若飲酒多進穀少者則胃內生熱 因大醉當風水水」, 「大熱毒 滲入百脈」, 「五臟積熱」등 飲酒를 오래해서 氣機가 耗傷되고 中氣가 衰乏되어 濕熱內聚하는 것으로 要約되고 있다.

한편 西洋醫學的인 面에서는 1958년 Zieve⁴²⁾는 肝疾患이 있는 알코올 中毒者에게 黃疸 高脂血症 溶血性貧血이 많음을 主張한 以來로 여러 研究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代謝를 促進시켜주는 藥物이나 肝損傷을 回復시켜주는 明確한 治療法은 아직 發見하지 못하고 있다³⁴⁾.

韓醫學에서는 張¹⁾의 梔子大黃湯 以後에 여러 醫家에 의해 多種의 治方이 立方되었으나 酒疸에 對한 治方이 醫書마다 다르고 浩繁하므로 酒疸의 適切한 治療를 위해서는 이들 治

方에 對한 研究調查가 必要하다고 思料되어 著者는 黃疸 중 酒疸의 治方을 中心으로 歷代 醫書에 收載된 處方들을 分析하여 使用頻度와 使用藥物의 種類와 分類 등을 調査한 바 다음과 같은 知見을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調査資料 및 方法

1. 調査資料

調査資料는 古典 및 現代文獻 32種의 書籍으로 하였으며, 調査된 모든 文獻의 治方을 調査對象으로 하였다.

本 論文에서 參考한 書籍은 다음과 같다.

- (1) 張仲景; 金匱要略方論
- (2) 孫思邈; 千金翼方
- (3) 王燾; 外臺秘要
- (4) 王懷隱; 太平聖惠方
- (5) 吳錫橫; 聖濟總錄
- (6) 陳無擇; 三因方
- (7) 朱橚; 普濟方
- (8) 金禮蒙; 醫方類聚
- (9) 李東垣; 東垣十種醫書
- (10) 方廣; 丹溪心法附與
- (11) 樓全善; 醫學綱目
- (12) 龔廷賢; 萬病回春
- (13) 王肯堂; 六科准繩
- (14) 許浚; 東醫寶鑑
- (15) 張介賓; 景岳全書
- (16) 李仲梓; 醫宗必讀

- (17) 張路玉; 張氏醫通
- (18) 周命新; 醫門寶鑑
- (19) 吳謙; 醫宗金鑑
- (20) 葉天士; 臨證指南醫案
- (21) 魏之琇; 續名醫類案
- (22) 陳修園; 南雅堂醫書全集
- (23) 黃度淵; 醫宗損益
- (24) 廣秦煥; 仲景方類聚
- (25) 金定濟; 診療要鑑
- (26) 陸青節; 萬病醫藥顧問
- (27) 徐學山; 醫學門徑
- (28) 吳得泳; 惠庵醫方
- (29) 金定濟 外; 東醫肝系內科學
- (30) 王顯明; 中醫內科辨證學
- (31) 中醫學會; 中醫內科學概要
- (32) 楊醫亞; 中醫學問答

2. 調査方法

①32種의 文獻에서 酒疸의 治方을 拔萃하였다.

②治方에 對해서는 時代順으로 種類 및 構成藥物, 出現頻度を 分析하고 藥物의 種類와 分類에 대해서도 分析하였다.

③藥物의 分類는 辛⁴³⁾에 依하였다.

④以上에서 얻어진 資料를 관련지위 考察에서 살펴보았다.

Ⅲ. 調査內容

酒疸에 對한 治方은 漢代 〈金匱要略〉에서 처음으로 收載되었으며, 그 後 最近 까지의 文獻에 나타난 酒疸의 治方을 다음과 같이 分析하여 보았다.

1. 酒疸의 治方 種類

調査된 歷代 醫書에 나타난 酒疸의 治方은 梔子大黃湯 등의 46首였으며 이들 治方은 理氣, 淸熱을 爲主로 한 處方이 主種을 이루었다.

文獻에 나타난 酒疸의 治方 및 治方構成은 아래와 같다(表 I, II).

2. 治方の 出現頻度

酒疸의 治方이 收載된 32種의 醫書에서 가장 많이 使用된 治方은 梔子大黃湯으로 18回 出現하여 65.3%의 頻度を 보였고 治方 出現 總 累計의 17.1%에 該當하였으며, 葛朮湯이 6回, 葛花解醒湯5回, 當歸白朮湯5回, 艾葉湯 5回, 白朮湯4回 등으로 減少하였다(表III).

3. 使用 藥物의 種類

酒疸의 治方에 使用된 藥物의 種類는 枳實 外 101種 이었고 治方 出現 總 累計 105回 中 枳實이 42回로 가장 많이 使用되었으며 梔子, 大黃, 豆鼓의 順으로 減少하였다(表IV).

4. 使用 藥物의 分類

治方 出現 總 累計 105回 中 3回 以上 使用된 藥物을 分類한 바 理氣藥이 가장 많았고 淸熱藥, 解表藥, 滲濕利水藥의 順으로 減少하였다(表V).

表 1. 酒疸의 治方

出典	刊行年度	治方名	備考
金匱要略	3世紀 初	梔子大黃湯	
千金翼方	682	牛膽煎 梔子湯 茵陳湯 茯苓圓	梔子大黃湯斗 同一
外臺秘要	752	梔子枳實鼓大黃湯 黃耆湯	梔子大黃湯斗 同一
外臺必要	752	艾湯 千金茵陳湯 千金翼苦參散 寒水石散	
太平聖惠方	992	大黃散 艾湯 梔子散 牛膽圓	梔子大黃湯斗 同一
聖濟總錄	1117	茵陳湯 黃耆牧丹湯 艾葉湯 癡水石散 小麥飲 桔梗湯 黃連丸 木通散 追毒飲 乳香礬砂丸 大黃湯 瓜蒂丸	梔子大黃湯斗 同一
三因方	1174	半夏湯 二石散 白朮湯 當歸白朮湯 人參散 如神散	
普濟方	1425	澤瀉散 黃連丸 半夏湯 當歸白朮湯 赤茯苓丸 茯苓丸 二石散 茵陳湯 桔梗湯 瓜蒂丸 六物湯 追毒飲 乳香礬砂丸 大黃湯 艾葉湯 黃耆牧丹湯 如神散 小麥飲 酒蒸黃連丸 木通散	
醫方類聚	1443	艾湯 梔子散 牛膽丸 小柴胡湯加茵陳,豆鼓,大黃,黃連,葛根 三因白朮散 三因當歸白朮散 六物湯	三因方斗 同一 三因方斗 同一 普濟方斗 同一

- 金剛山外1：酒疸의 治方에 對한 文獻의 考察 -

出典	刊行年度	治方名	備考
東垣十種醫書	1529	葛花解醒湯	
丹溪心法附與	1536	葛根白朮湯 加減五苓散 葛根湯	
醫學綱目	1565	葛根湯 梔子大黃湯	
萬病回春	1587	茵陳散加味	
六科准繩	1602	三因白朮湯 梔子大黃湯 葛根湯 小柴胡湯加茵陳,豆豉,大黃,黃連,葛根 藿枕飲 生科五苓散加葛根 葛花解醒湯 當歸白朮湯 藿香脾飲加木香,麥芽,黃栢	
東醫寶鑑	1611	半溫半熱湯 梔子大黃湯 葛朮湯 當歸白朮湯	
景岳全書	1624	梔子大黃湯	
醫宗必讀	1637	葛花解醒湯加茵陳	
張氏醫通	1695	梔子大黃湯 梔子鼓湯	
醫門寶鑑	1723	葛朮湯 梔子大黃湯	
醫宗金鑑	1742	梔子大黃湯	
臨證指南醫案	1766	戊己湯加當歸,柴胡,乾薑,大棗	
續名醫類案	1770	四苓散加厚朴,陳皮,山查,麥芽,葛根,青蒿	
南雅堂醫書全集	1865	梔子大黃湯	
醫宗損益	1868	酒蒸黃連丸 葛朮湯	
仲景方類聚	1974	梔子大黃湯	
診療要鑑	1974	葛朮湯 清腎補肝湯	
萬病醫藥顧問	1976	梔子大黃湯 茵陳葛花解醒湯 藿香扶脾丸	
醫學門徑	1977	茵陳五苓散加天花粉,滑石,葛根	
惠庵醫方	1978	葛朮湯 柴胡茵陳五苓散加葛根	
東醫肝系內科學	1983	葛朮湯 清腎補肝湯	
中醫內科辨證學	1984	葛花解醒湯加茵陳 生科五苓散加葛根 小柴胡湯加茵陳,大黃,黃連,葛根 三因白朮散 梔子大黃湯	
中醫內科學概要	1984	茵陳玉露飲	
中醫學問答	1985	梔子大黃湯	

表 II. 酒疸의 治方構成

治方名	構成	出典
梔子大黃湯 梔子湯 梔子枳實鼓大黃湯 大黃散,大黃湯	梔子, 大黃, 枳實, 豆豉	1,2,3,4,5,7,11,13,14,15,17,18,19,22,24,26,30,32
牛膽煎,牛膽圓,牛膽丸	牛膽,大黃,芫花,薤花	2,4,8
茵陳湯(I)	茵陳,大黃,黃芩,黃連,人參,梔子,甘草	2
茯苓圓	茯苓,茵陳,乾薑,半夏,杏仁,商陸,甘遂,枳實,蜀椒,白朮	2
黃耆散,黃耆湯,黃耆木蘭湯	黃耆,木蘭	3,5,7
艾湯,艾葉湯	艾葉,麻黃,大黃,大豆	3,4,5,7,8
千金茵陳湯	茵陳,大黃,梔子,黃芩,人參,黃連,甘草	3
寒水石散	寒水石,白石脂,栝樓,兔絲子,知母,桂心	3
梔子散(I)	梔子,豆豉,大黃	4
茵陳湯(II)	茵陳,赤茯苓,葛根,梔子,栝樓,秦艽,升麻	5,7
凝水石散	凝水石,巨石脂,栝樓,兔絲子	5
小麥飲	小麥	5,7
桔梗湯	桔梗,百合,赤茯苓,桑白皮,枳殼,檳榔,木通	5,7
黃連丸	黃連,黃栢,黃芩,大黃,梔子,黃藥子,鬱金,秦艽,貝母,甘草,黃明膠,款冬花,白芥子	5,7
木通散	木通,甘草,檳榔,麻黃,秦艽,木香,瞿麥,乾薑	5,7
追毒散	狗脊,白芥子,甘草	5,7
乳香礞砂丸	乳香,礞砂,安息香,巴豆	5,7
瓜蒂丸	瓜蒂,大黃,芫花,薤花,牛膽	5,7
半夏湯	半夏,白茯苓,白朮,前胡,枳殼,甘草,大戟,黃芩,茵陳,當歸	6,7
二石散	凝水石,白石脂,肉桂,兔絲子,知母	6,7
白朮湯 三因白朮湯	肉桂,白朮,枳實,豆豉,葛根,杏仁,甘草	6,8,13,30
當歸白朮湯 三因當歸白朮湯	白朮,白茯苓,當歸,黃芩,茵陳,前胡,枳實,杏仁,甘草,半夏	6,7,8,13,14
人參散	人參,白芍,花粉,白茯苓,酸棗仁,甘草,枳殼,熟地黃	6
如神散	苦匏子,苦葫蘆子,黃黍米,安息香	6,7
茯苓丸	茯苓,乾薑,白朮,枳實,半夏,杏仁,甘遂,蜀椒,當歸	7

治方名	構成	出典
澤瀉散	澤瀉,黃芩,白鮮皮,茵陳,阿膠,甘草	7
赤茯苓散	赤茯苓,茵陳,枳實,白朮,前胡,大黃,甘草,當歸,半夏	7
六物湯	畢撥,荊芥,川練子,生薑,烏梅,甘草	7,8
酒蒸黃連丸	黃連	7,23
小柴胡湯加味	柴胡,黃芩,人參,半夏,甘草,茵陳,豆豉,大黃,黃連,葛根	7,23
梔子散(Ⅱ)	梔子,大黃	8
葛花解醒湯	白豆蔻,砂仁,葛花,乾薑,神麩,澤瀉,白朮,橘皮,猪苓,人參,白茯苓,木香,蓮花,青皮	9,13,16,26,30
葛根白朮湯	白茯苓,當歸,白朮,黃芩,半夏,茵陳,甘草,枳實,杏仁,前胡	10
加減五苓散	茵陳,赤茯苓,猪苓,白朮,澤瀉	10
葛根湯	枳實,梔子,豆豉,甘草,葛根	10,11,13
茵陳散加味	茵陳,梔子,赤茯苓,澤瀉,蒼朮,枳實,黃連,厚朴,栝樓,葛根,砂仁	12
半溫半熱湯	半夏,赤茯苓,白朮,前胡,枳殼,大戟,甘草,黃芩,當歸,茵陳	14
葛朮湯	蒼朮,葛根,枳實,梔子,甘草,豆豉	14,18,23,25,28,29
梔子鼓湯	梔子,豆豉	17
戊己湯加味	白芍,甘草,當歸,柴胡,乾薑,大棗	20
四苓散加味	澤瀉,赤茯苓,白朮,猪苓,厚朴,陳皮,山查,麥芽,葛根,青蒿	21
清腎補肝湯	白芍,葛根,青皮,當歸,蘿蔔子,厚朴,蒼朮,赤茯苓,神麩,砂仁,黃柏,甘草	25,29
藿香扶脾丸	甘草,厚朴,半夏,藿香,木香,陳皮,麥芽	26
茵陳五苓散加味	茵陳,茯苓,猪苓,澤瀉,白朮,梔子,木通,山查,枳實,廣皮,甘草,滑石,燈心	27
柴胡茵陳五苓散	澤瀉,赤茯苓,白朮,猪苓,肉桂,茵陳,車前子,木通,柴胡,葛根	28
茵陳玉露飲	茵陳,玉竹,石斛,天花粉,葛花,梔子,廣皮,半夏,茯苓,萹藤,薏苡仁	31

表 III. 治方 出現 頻度

治方名	出現數	出現頻度*	治方占有度**
梔子大黃湯	18	56.3%	17.1%
葛朮湯	6	18.8%	5.7%
葛花解醒湯	5	15.7%	4.8%
當歸白朮湯	5	15.7%	3.8%
艾葉湯	5	15.7%	2.9%
白朮湯	4	12.5%	2.9%
牛膽煎	3	9.4%	2.9%
黃耆散	3	9.4%	2.9%
小柴胡湯加味	3	9.4%	2.9%
葛根湯	3	9.4%	2.9%
桔梗湯外 14種	2	6.3%	1.9%
澤瀉散外 22種	1	3.1%	0.9%

* 調査된 32卷의 醫書 中에서 나타난 出現頻度(즉 32로 나눈 數)

**出現 總 累計 105로 나눈 數

表 IV. 使用 藥物의 種類와 頻度

枳實(42), 梔子(38), 大黃(36), 甘草(30), 茵陳(28), 白朮(24), 葛根(23), 黃芩(17), 半夏(17), 白茯苓(16), 當歸(14), 赤茯苓(13), 杏仁(12), 人蔘(11), 乾薑(前胡), 蒼朮(10), 豬苓(9), 木香, 砂仁(8), 肉桂, 神麩, 麻黃(7), 木通, 葛花, 枳殼, 栝樓(6), 柴胡, 蓮花, 秦艽, 白豆蔻, 青皮, 知母, 芫花, 薤花, 橘皮, 厚朴, 艾葉(5), 白芍藥, 陳皮, 黃柏, 白芥子, 牛膽, 白石脂, 凝水石, 菟絲子(4), 檳榔, 安息香, 大戟, 黃耆, 牡丹皮(3), 荊芥, 川練子, 花粉, 苦匏子, 苦葫蘆子, 生薑, 黃黍米, 畢撥, 烏梅, 山楂, 麥芽, 蘿蔔子, 廣皮, 小麥, 桔梗, 百合, 桑白皮, 貝母, 黃明膠, 疑冬花, 瞿麥, 狗脊, 甘遂, 蜀椒, 大豆, 升麻, 黃藥子, 鬱金, 乳香, 礞砂, 瓜蒂(2), 熟地黃, 白鮮皮, 阿膠, 酸棗仁, 大棗, 青蒿, 藿香, 燈心, 車前子, 玉竹, 石斛, 萆薢, 薏苡仁, 巴豆, 商陸, 桂心, 滑石(1)
--

表 V. 使用 藥物의 分類

分類	藥物名	累計
理氣藥類	枳實(42), 木香(8), 砂仁(8), 枳殼(6), 白豆蔻(5), 青皮(5), 橘皮(5), 厚朴(5), 陳皮(4), 檳榔(3)	91
清熱藥類	梔子(38), 黃芩(17), 栝樓(6), 知母(5), 黃柏(4), 牛膽(4), 凝水石(4)	78
解表藥類	豆豉(33), 葛根(23), 麻黃(7), 葛花(6), 柴胡(5)	74
滲濕利水藥類	茵陳(28), 茯苓(29), 豬苓(9), 木通(6)	72
補氣藥類	白朮(24), 人蔘(11), 白石脂(4), 菟絲子(4), 黃耆(3)	46
瀉下藥類	大黃(36), 芫花(5), 大戟(3)	44
化痰止咳藥類	半夏(17), 杏仁(12), 前胡(10), 白芥子(4)	43
補益調助藥類	甘草(30), 白芍藥(4)	34
溫熱藥類	乾薑(10), 肉桂(7)	17
祛風濕風痺藥類	蒼朮(10), 秦艽(5)	15
其他	當歸(14), 神麩(7), 艾葉(5), 安息香(3), 牡丹皮(3)	

IV. 總括 및 考察

酒類는 大熱大毒하고 標悍하며 淸滑^{6,7,9}하여 지나치게 攝取하면 體內에 痰飲이 正體되어 濕熱을 誘發하고, 이로 말미암아 脾胃의 升降機能이 失調되어 痰火停積하며 不能消散하고 上逆於胸內하여 熏於肝膽하여 肝浮膽橫³⁵하는 病變이 發生한다 하였고, 飲酒로 因한 肝疾患에 대하여 王³⁶은 酒類가 氣熱而質濕하기 때문에 濕熱이 體內에 쉽게 停留한다 한 것들은 柳³⁸가 alcohol로 因하여 眼球黃染, 食慾不振, 胸滿感, 或 肝膽腫大가 일어난다는 症候群으로 要約될 수 있을 것이다.

酒疸에 對한 治方은 <金匱要略>¹¹에서 처음으로 收載되었으며 以後 여러 處方들이 醫家에 따라 提示 되었다. 이들 處方을 分析하여 보면 理氣,淸熱,解表藥類를 爲主로 하는 處方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滲濕利水,補氣,瀉下藥類를 使用한 處方들이 많은데 이는 酒의 熱濕한 性을 다스리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治方에 使用된 藥物은 枳實,梔子,大黃,豆豉,甘草,茵陳,白朮,葛根,黃芩,半夏,白茯苓 等 101種이었으며, 使用 頻度數가 많은 藥物들은 主로 理氣,淸熱,解表,滲濕利水藥類가 主種을 이루고 있으며 補氣,瀉下,化痰止咳藥物도 多數 使用되었다.

Alcohol이 肝의 脂肪合成을 亢進시켜 脂肪肝을 招來하거나, 그 直接的인 毒性으로 肝硬變症 等の 肝病變^{39,40}을 일으키고 있다는 데 着眼하여 많은 實驗이 行하여져 왔는데, 柳³⁸는 加味對金飲子 投與가 ethanol로 因한 肝損傷에 미치는 影響에서 各種 酵素의 活性을 減少시켰으며, 禹⁴¹는 葛花解醒湯이 ethanol 中毒 癩의 肝機能에 미치는 影響에서 各種 酵素의 活性을 抑制하였다는 報告가 있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에 依하면 酒疸은 理氣,淸熱,解表,滲濕利水を 重視하였으며 梔子大黃湯,葛朮湯,葛花解醒湯 및 그 加減方이 많이 使

用되었고, 또 이들이 酒類에 依한 肝疾患에 좋은 效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實驗을 통한 明確한 究明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또, 內經³⁷以來 過飲이 人體에 有害한 影響을 미친다는 說이 자주 나타나지만 그 治方에 있어서 君臣佐使를 明確하게 表示하지 않은 點 等이 앞으로 더 많은 研究가 되어져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

V. 結論

歷代 醫書에 나타난 酒疸의 治方 總 46數를 調査하여 얻어진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酒疸의 治方으로는 梔子大黃湯이 가장 많이 使用되었고 그 다음이 葛朮湯 이었으며 葛花解醒湯,當歸白朮湯,艾葉湯의 順 이었다.
2. 酒疸의 治方에 使用된 藥物은 總 101種이었으며 枳實이 가장 많이 使用되었고 梔子,大黃,豆豉,茵陳의 順이었다.
3. 使用된 藥物은 理氣藥類가 가장 많았고 淸熱藥類, 解表藥類, 滲濕利水藥의 順이었다.

參考文獻

- 1.張仲景; 金匱要略方論,台北,台聯國風出版社, 1973, pp.74-77
- 2.孫思邈; 備急千金翼方,서울,大星出版社,1984, p.204
- 3.王燾; 外臺秘要,서울,成輔社,1975,pp.134-135
- 4.王懷隱; 太平聖惠方,서울,翰成社,1979,pp. 1692-1693
- 5.吳錫橫; 聖濟總錄,서울,翰成社,1977, pp.163-166
- 6.陳無擇; 三因方,서울,翰成社,1977,pp.392-394
- 7.朱橚; 普濟方,서울,翰成社,1981,pp.2693,2715-2719
- 8.金禮蒙 外; 醫方類聚,서울,金剛出版社,1981,

- pp.4767,4776-4777,4788,4802-4803
- 9.李東垣; 東垣十種醫書, 서울,同仁社,1976, pp.58-59
- 10.方廣; 丹溪心法附與,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300
- 11.樓全善; 醫學綱目,台南,太南北一出版社,1973, p.74.79
- 12.龔廷賢; 萬病回春,서울,杏林書院,1975.p.181
- 13.王肯堂; 六科准繩,서울,東明社,1975,p.308
- 14.許浚; 東醫寶鑑,서울,南山堂,1987,pp.512-513
- 15.張介賓; 景岳全書,서울,杏林書院,1975, pp.422-425
- 16.李仲梓; 醫宗必讀,서울,書苑堂,1976,pp.383-385
- 17.張路玉; 張氏醫通,台北,文光圖書公社,pp.379-381
- 18.周命新; 醫門寶鑑,大邱,東洋綜合通信教育院, 1987, p.148
- 19.吳謙 外; 醫宗金鑑,서울,翰林社,1975, pp.419-420, 424-425
- 20.葉天士; 臨證指南醫案,서울,翰成社,1982,p.309
- 21.魏之琇; 續名醫類案,台北,宏業書局,1979, pp.208-210
- 22.陳修園; 南雅堂醫書全集,서울,杏苑社,1974, pp.747-748
- 23.黃度淵; 醫宗損益,서울,醫藥社,1976,pp.544-545
- 24.廣泰煥; 仲景方類聚,서울,癸丑文化社,1974,pp.192-193
- 25.金定濟; 診療要鑑,서울,東洋醫學研究員,1974,p.579
- 26.陸青節; 萬病醫藥顧問,台北,大中國圖書公社, 1976, pp.124-125
- 27.徐學山; 醫學門徑,台北,新文豐出版社,1977,p.381
- 28.吳得泳; 惠庵醫方,서울,醫藥社,1978,pp.133-134
- 29.金定濟 外; 東醫肝系內科學,서울,集文堂,1983, p.60
- 30.王顯明; 中醫內科辨證學,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4, pp.320-322
- 31.中醫學會; 中醫內科學概要, 台北, 自由出版社, 1984, p.170.172
- 32.楊醫亞; 中醫學問答,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5, pp.319-320
- 33.中國中醫研究員; 正統金匱要略,光州,醫學研究社, 1983,p.313
- 34.李文鏞; 內科學,서울,博愛出版社,1977,p.1003
- 35.巢元方; 巢氏諸病源候論,台北,國際書局,1978,20卷, pp.13-14
- 36.程杏軒 撰; 醫述,安徽科學技術出版社,1983,p.425
- 37.王冰 註; 黃帝內經,서울,高文社,1971,p.31,141,349
- 38.柳基遠; 酒傷病에 應用되는 加味對金飮子가 ethanol로 인한 白鼠의 肝損傷에 미치는 影響, 慶熙大學校韓醫科大學論文集,3卷,1980, pp.1-14
- 39.김인선; 알콜에 起因된 肝損傷 2例,大韓消化器病學會雜誌,141,1982,pp.197-205
- 40.林煥喆; 알콜 長期投與에 依한 白鼠肝組織의 生化學的 變化에 關한 研究,綜合醫學,7:6, 1962, pp.11-23
- 41.禹弘楨; 葛花解醒湯이 ethanol 中毒 흰귀의 肝機能에 미치는 影響,慶熙韓醫大論文集7권,1984, pp.88-101
- 42.Zieve,L; Janundice,hyperlipemia and hemolytic anemia,AM.J.Med,48,1958,p.471
- 43.辛民教; 臨床本草學,서울,南山堂,1986,pp.165-718

ABSTRACT

The Bibliographic Study on the medicine of *Ju Dal*(酒疸)

Kang San Kim, Byung Ki Kang

The total 46 prescriptions of *Ju Dal*(酒疸), recorded in all the medical were investigated.

1. The most used prescription of *Ju Dal*(酒疸) is *CHIJADAIHUANGTANG*(梔子大黃湯). The next ones are *GALCHULTANG*(葛朮湯), *GALHWAHAIJEONGTANG*(葛花解醒湯), *DANGGUIBAICCHULTANG*(當歸白朮湯).

2. The total 101 kinds of medicines were administered for the prescription of *Ju Dal*(酒疸).

Fructus Aurantii Immaturus(枳實) was prescribed for the most popular medicine and *Fructus Gardeniae*(梔子), *Radix et Rhizoma*(大黃), *Semen Sojae Praeparatum*(豆豉), *Radix Glycyrrhizae*(甘草), *Herba Artemisiae Scopariae*(茵陳) follows.

3. *Li Gi*(利氣) medicines were the most popularly prescribed ones, *Chung Youl*(清熱) medicines, *Hai Dok*(解毒) medicines, *Sam Sub Li Su*(滲濕利水) medicines follows.